

PS · ABS

스틸렌계 수지의 주원료인 SM의 수급현황을 보면, 93년 생산은 92년대비 2.9% 증가한 125만톤, 내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86만톤이었으나 수입과 직수출은 각각 20.0%, 5.6% 감소한 14만톤, 40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생산은 93년대비 0.8% 증가한 126톤, 내수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92만7000톤, 수입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4만2000톤, 직수출은 전년대비 15.5% 증가한 46만2000으로 나타났다.

국내 SM 생산시장은 94년 126만톤으로 102%의 가동률을 보였다. 따라서 새로운 신증설이 없다면 95년 121만4000톤에 이를 국내 수요량을 메꾸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국내 SM수급타이트는 삼성종합화학의 20만톤 SM증설계획과 현대가 대산단지에서 20만톤 추가 생산하는 등 기존 NCC기업들의 생산량 확대가 이루어지는 96년에 가서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PS · ABS 및 SM 수급추이

(단위 : M/T, %)

품목	구분	1992	1993		1994		1995	
		수량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P S (EPS 포함)	생산능력	600,000	925,000	-	925,000	-	925,000	-
	생산	712,300	740,000	3.9	796,500	7.6	864,000	8.5
	가동률	118.7	86.5	-	89.7	-	93.4	-
	판매내수	273,900	297,000	8.4	370,000	0.1	440,000	18.9
	로칼	161,700	180,000	11.3	140,000	▽5.6	1,375,000	▽1.8
	직수출	254,300	260,000	2.2	291,500	7.7	304,500	4.5
	소계	689,900	737,000	6.8	801,500	10.0	882,000	17.6
	수입	14,012	16,000	14.2	23,500	6.3	18,000	▽23.4
	국내수요	449,600	493,000	9.7	533,500	8.2	575,500	7.8
	재고	42,400	-	-	-	-	-	-
A B S	생산능력	305,000	370,000	-	370,000	-	370,000	-
	생산	292,700	332,400	13.5	389,000	17.0	394,000	1.2
	가동률	95.9	89.8	-	94.6	-	-	-
	판매내수	92,000	105,300	14.5	127,500	19.4	131,400	4.7
	로칼	61,300	69,500	13.3	77,500	15.1	79,100	2.0
	직수출	135,300	151,600	12.0	178,000	5.5	250,000	40.4
	소계	288,600	326,400	13.1	383,000	12.0	460,500	20.2
	수입	1,750	5,000	185.7	8,000	▽40.0	7,000	▽12.5
	국내수요	155,100	179,800	16.0	213,000	18.46	232,000	8.9
	재고	18,900	-	-	-	-	-	-
S M	생산능력	1,256,400	1,256,400	-	1,256,400	-	1,256,400	-
	생산	1,214,700	1,250,000	2.9	1,260,000	0.8	1,281,500	1.7
	가동률	96.6	99.5	-	100.2	-	102.0	-
	판매내수	346,500	860,000	9.3	927,000	4.7	974,200	5.0
	로칼	440,600	-	-	-	-	-	-
	직수출	423,700	400,000	▽5.6	462,000	15.5	431,400	▽6.6
	소계	1,210,800	1,260,000	4.1	1,389,000	1.6	1,405,600	1.2
	수입	175,000	140,000	▽20.0	142,000	1.4	170,000	19.7
	국내수요	962,100	1,000,000	3.9	1,120,000	-	1,214,000	8.3
	재고	28,900	-	-	-	-	-	-

유공 역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25만톤 규모 SM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져 96년 국내 SM시장은 자칫 공급과잉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 ABS 95년 8% 성장 전망

93년 PS생산은 92년대비 3.9% 증가한 74만톤, 93년은 79만6500톤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는 93년에 49만3000톤으로 전년대비 9.7%, 94년에는 8.2% 증가한 53만3500톤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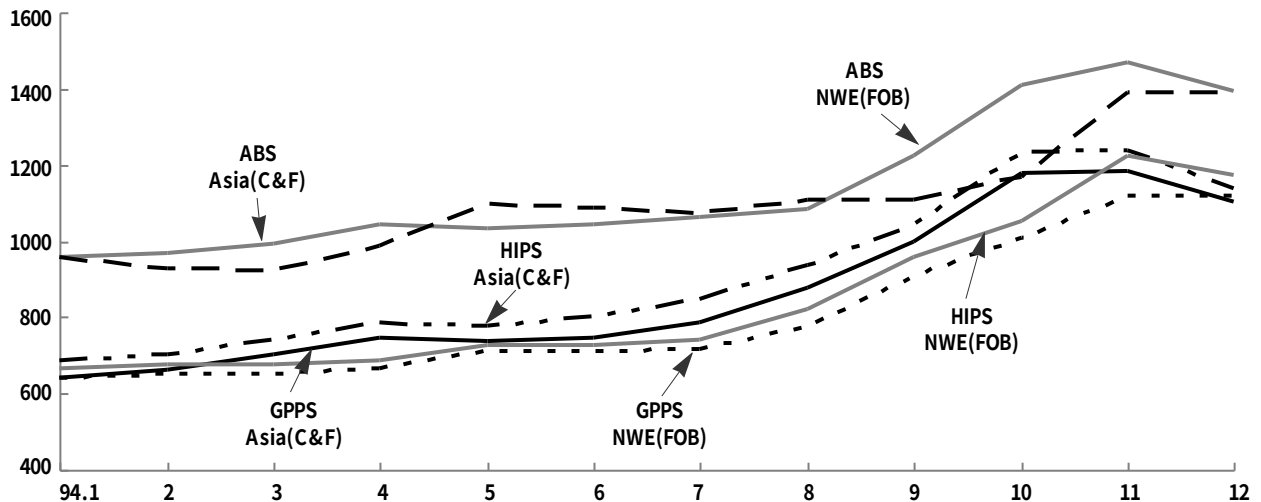
94년 국내 PS수급은 생산 79만6500톤, 직수출 29만1500톤, 수입 2만3500톤, 국내수요 53만35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95년에도 PS는 생산이 94년보다 8.4% 늘어난 86만4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수요는 7.8% 증가한 57만55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BS는 93년 17만9800톤의 수요에서 94년에는 21만3000톤으로 18.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에는 23만2000톤으로 94년대비 8.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S · ABS 가격추이

(단위 : 달러/MT)



PS · ABS 기업별 생산추이

(단위 : 1000M/T, %)

구분	회사명	1993						1994. 상반기					
		생 산		판		매		생 산		판		매	
		수량	가동률	내수	로칼	직수출	계	수량	가동률	내수	로칼	직수출	계
PS	미 원 유 화	184.0	69.4	81.5	29.8	76.1	187.4	93.0	70.2	45.5	10.9	36.2	92.6
	효성바스프	145.3	88.1	45.8	38.3	65.2	149.3	78.3	94.9	24.4	19.9	32.0	76.3
	신 아	36.0	60.0	26.8	1.0	7.5	35.3	16.5	55.0	12.7	0.4	4.9	18.0
	L G 화 학	133.5	95.4	45.8	38.3	47.9	132.0	69.8	99.7	24.4	18.6	29.9	72.9
	동 부 화 학	104.0	77.1	34.2	19.7	51.9	105.8	55.5	82.2	18.9	9.3	25.7	53.9
	제 일 모 직	137.0	85.6	44.3	32.0	60.8	137.1	73.7	92.1	22.1	16.3	34.4	72.8
계		739.0	80.0	278.4	159.1	309.4	746.9	386.8	83.6	148.0	75.4	163.1	386.5
ABS	미 원 유 화	66.7	95.3	20.4	5.8	38.2	64.4	32.7	81.8	11.4	1.8	20.0	33.2
	L G 력 키	141.5	76.5	51.6	31.0	59.0	141.6	81.3	87.3	28.0	17.0	37.9	82.9
	신 아	26.8	76.6	8.0	1.0	18.4	27.4	11.5	65.7	5.0	0.5	7.2	12.7
	제 일 모 직	70.1	116.8	21.1	21.8	27.7	70.6	42.6	142.0	12.8	13.2	17.0	43.0
	효성바스프	28.5	95.3	7.1	4.2	15.5	26.8	15.4	102.7	3.7	2.7	10.3	16.7
	계	333.7	87.8	108.2	63.8	158.8	330.8	183.5	94.1	60.9	35.2	92.4	188.5

EPS는 94년 국내수요가 20만톤정도 였으며 95년에는 이보다 5~6% 증가한 21만여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4년 국내 EPS 시장은 전자산업의 해외이전과 환경문제로 전자제품 이외의 수요제약으로 포장재용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열재에서는 시공상의 문제로 Glass Wool과 암면 등이 대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당분간 EPS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PS,ABS 생산추이를 보면 PS부문에서는 94년 상반기 기준으로 미원유화가 생산 9만3000톤, 내수 4만5500톤, 직수출 3만6200톤으로 나타났으며, 94%의 가동률을 보인 효성바스프는 생산 7만8300톤, 내수 2만4400톤, 직수출 3만2000톤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아, LG화학, 동부화학, 제일모직 등 전체 PS기업들은 94년 상반기동안 38만6800톤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BS는 94년상반기 기준 LG화학이 8만1300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였으며 내수 2만8000톤, 직수출 3만7900톤으로 나타났다. 미원유화는 생산 3만2700톤, 내수 1만1400톤, 직수출을 2만톤것으로 밝혀졌다.

제일모직, 효성바스프는 가동률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94년 상반기까지 ABS 총생산량은 18만35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PS가격은 94년초 톤당 FOB기준 650달러였던 것이 4월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9월 1050달러, 10월초 1300달러로 2배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11월부터 점차 약세로 전환, 95년초까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현재 GPPS는 내수가격이 톤당 119만원, 로컬가격이 1300 달러이고 HIPS는 내수가격이 톤당 129만원, 로컬가격이 1390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EPS는 포장재용이 94년초 톤당 95만 ~100만원선에서 현재는 135 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EPS시장은 SM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95년 상반기에는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전기·전자 수급동향

(단위 : (생산·내수)억원, (수입·수출) 100만달러,

구	분	1993		1994		1995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가전기기	생 산	86,861	9.2	101,749	13.2	114,054	12.1
	수 출	6,253	4.8	6,823	9.1	6,711	▽1.6
전자부품	생 산	137,198	12.4	180,617	31.6	228,569	26.5
	수 출	11,045	5.3	16,174	46.4	21,824	34.9
컴퓨터	생 산	34,116	19.3	40,543	18.8	43,259	6.7
	수 출	3,097	13.8	2,877	▽7.1	2,722	▽5.4
통신기기	생 산	23,810	13.7	28,076	17.9	32,205	14.7
	수 입	923	14.3	1,328	43.9	2,115	59.3
	내 수	18,713	4.3	24,244	29.6	33,445	38.0
	수 출	1,556	24.7	945	13.9	1,960	8.7

자동차 수급 전망

(단위 : 1000대,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대 수	증감률	대 수	증감률	대 수	증감률
생산	승용차	1,037	1,593	21.88	1,850	18.20	2,063	9.56
	상용차	422	457	8.29	530	14.66	605	15.46
내수	승용차	879	1,038	18.09	1,144	10.21	1,263	10.40
	상용차	385	399	3.64	426	6.77	464	8.90
수출	승용차	428	572	33.64	670	17.13	779	16.26
	상용차	29	66	127.59	89	34.85	116	30.34

전기·전자 호황으로 PS 수요증가

스틸렌계 수지의 수요산업은 전기·전자, 포장을 비롯하여 자동차, Tape, 잡화 등으로 전기·전자가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장산업이 20.5%, 자동차가 2.3%, 그리고 기타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기·전자에 사용된 PS수지는 91년 9만 2400톤, 92년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9만 7000 여톤, 93년은 2.1% 증가한 9만9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수요는 93년대비 7.1% 증가한 10만 6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들어 국내 전기·전자산업은 전반적인 내수경기 호조와 전자부품분야의 수출시장 호황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이와같이 94년 국내 전자산업계의 높은 성장세는 3/4분기에 40%에 가까운 높은 수출신장세를 나타낸 전자부품시장의 호황세와 주요 가전제품 수출 및 내수 증가, PC의 내수판매 급증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현재 달러당 97~100엔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환율과 세계 경기의 회복가속화 등의 대외환경 역시 국내 전자산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95년 국내 전자산업계는 94년에 이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은 94년 10월말 현재 255 억달러로 93년보다 27%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수판매는 94년 9월말 현재 6조1259 억원으로 93년보다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10월말까지의 수출실적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33.5%를 차지하는 것으로 93년의 28.0%에 비해 그 비중이 5.5% 포인트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SM 및 PS·ABS 수급추이

(단위 : 1000M/T,%)

품 목	구 분	1992	1993		1994		1995		
		수 량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SM	세계	생 산 능 력	16,217	16,647	2.65	17,557	5.47	18,281	4.12
		생 산	14,038	14,168	9.26	14,879	5.02	15,625	5.01
		수 요	13,837	14,215	2.73	14,879	6.02	15,625	5.01
	아시아	생 산 능 력	4,339	4,454	2.65	4,704	5.61	5,288	12.41
		생 산	4,046	4,113	1.66	4,305	4.67	4,625	7.43
		수 요	4,661	4,963	6.48	5,309	6.97	5,677	7.00
PS	세계	생 산 능 력	11,756	12,282	4.47	12,765	3.93	13,261	3.89
		생 산	9,265	9,542	3.00	10,037	5.19	10,677	6.38
		수 요	9,305	9,499	2.53	10,037	5.19	10,677	6.38
	아시아	생 산 능 력	3,764	4,161	10.55	4,503	8.22	4,962	10.19
		생 산	3,123	3,280	5.03	3,517	7.23	3,899	10.86
		수 요	3,183	3,234	1.60	3,555	9.93	3,931	10.58
ABS	세계	생 산 능 력	4,221	4,414	4.57	4,533	2.70	4,853	7.06
		생 산	3,102	3,138	1.16	3,295	5.00	3,560	8.04
		수 요	3,066	3,106	1.30	3,295	6.08	3,560	8.04
	아시아	생 산 능 력	2,184	2,351	7.65	2,468	4.98	2,741	11.06
		생 산	1,678	1,712	2.03	1,786	4.32	1,995	11.70
		수 요	1,590	1,631	2.58	1,754	7.54	1,949	11.12

전자제품 생산액은 9월말 현재 26조5000여억원으로 93년에 비해 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94년 초 전자업계의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가전제품의 경우 해외생산 확대와 중국·동남아산 저가품의 미국시장 공략 등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세탁기 수출이 9월까지 93년동기대비 48.5%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여 94년 10월말 현재 93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59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내수에서는 26~93%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수출에서는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함께 94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선풍기 등 가전제품의 호황도 내수 호조에 일익을 담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기·전자 부문에서의 PS수요는 93년동기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S 전체수요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S에 대한 용도별 사용을 보면, Tape용 PS수지 사용량은 91년 7만3400톤, 92년에는 15% 증가한 7만4500 톤, 93년에는 0.6% 증가한 7만4000톤으로 수요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Tape용 PS수요는 93년대비 성장률 0%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내 관련기업들이 Tape의 직접 생산보다는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95년에도 Tape용 PS수지 사용량은 반제품 수입의 증가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Sheet에 사용되고 있는 PS는 PS 전체수요의 약 17%정도로 92년 이후에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4년 Sheet 용 PS사용량은 93년대비 약 2% 증가한 5만1000톤으로 집계됐다.

또 95년 Sheet용 PS수지 사용량은 94년대비 약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기·전자 쪽을 포함한 수요증가와 일회용품 위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94년 잡화부문 PS수요는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잡화 및 기타분야에 사용된 PS사용량은 4만3000톤으로 93년 의 4만톤보다 약 7.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 PS사용량중 잡화 및 기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94년 요쿠르트분야에 사용된 PS사용량은 2만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쿠르트용기용 PS수지 사용량은 91년 1만8400톤, 92년에는 1.1% 증가한 1만 8600 톤, 93년에는 2.2% 증가한 1만9000톤, 94년에는 2만톤으로 5.3% 증가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 호황으로 ABS 수요증가

자동차부문에서는 주로 ABS수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부문에서 사용되는 ABS수지는 92년에는 전년대비 19.2% 증가한 1만3700톤, 93년에는 전년대비 10.9% 증가한 1만5200톤, 94년에는 전년대비 8% 상승한 1만6400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소요되는 ABS양은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승용차는 10Kg, 상용차는 2~3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부분은 Instrument·Panel, Back miller, Grove box, Console box, 오디오 Panel, Column Cover, Handle, Combination power 스위치, Desposit box, Cluster facia 등이며 차종별·기업별로 복합PP나 다른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상반기 자동차산업은 93년 동기대비 16.8% 증가한 113만9000대를 생산했으며 하반기에는 93년 동기대비 14.4% 증가한 124만1000대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94년 전체로는 93년대비 15.6% 늘어난 238만대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승용차 생산은 약 185만대, 상용차 생산은 53만여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5년 자동차산업은 내수부문에서 94년 상반기의 대기수요가 하반기에 거의 소화, 되어 하반기 생산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내수 및 수출시장의 호조로 생산물량이 늘어나 기업별로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인 것은 연례행사과 같은 대규모 노사분규 없이 안정적인 조업을 수행할 수 있어 생산에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생산은 승용차의 경우, 신모델 투입에 따른 신규수요 및 중형급 승용차의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93년 159만3000대에서 94년에는 18.2% 증가한 185만대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일부 차종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출고적체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상용차는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공단조성 등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트럭을 중심으로 판매호조를 보여 93년 45만7000대에서 94년에는 전년대비 14.7% 증가한 53만대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승용차 수출은 93년대비 17.1% 증가한 67만대, 상용차는 93년대비 34.9% 증가한 8만9000대를 기록해 93년에 이어 상용차의 신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엔화강세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및 판매망 강화, 신차 투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94년에는 시장다변화로 수출은 아시아지역과 동유럽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각지역에서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자동차산업은 내수 및 수출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바탕으로 수요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이지만 94년과 같은 폭발적인 증가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교통체증의 증가, 지하철의 완공시기, 자동차 대중화시기 진입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신규보다는 대체수요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생산은 94년대비 13.2% 증가된 266만800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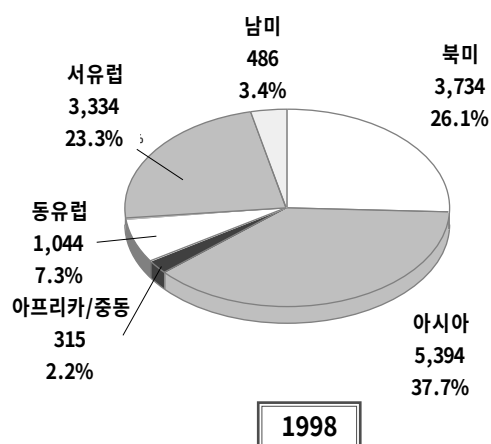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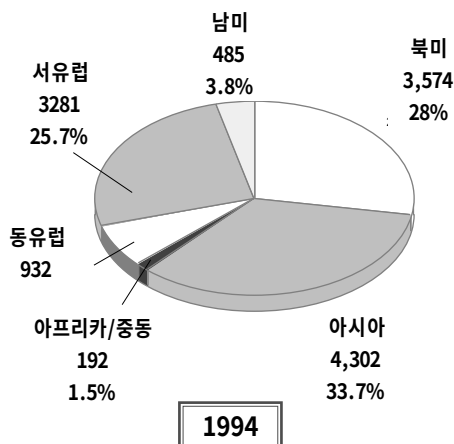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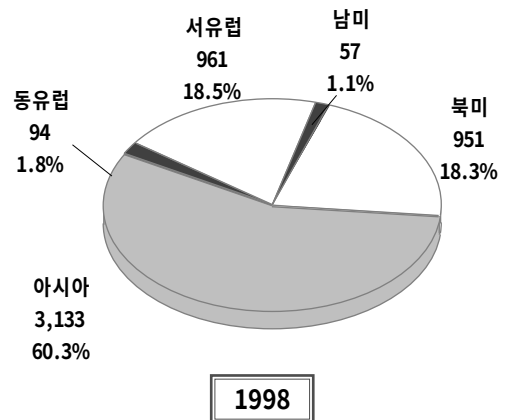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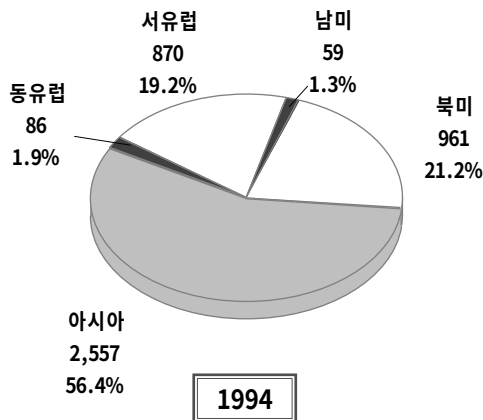
승용차는 94년에 이어 신모델 개발 본격화와 중형차 선호경향이 더욱 심화되면서 대체수요를 중심으로 94년대비 9.6% 증가한 206만3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상용차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본격화와 공공부문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5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용차는 수요증대와 함께 다양한 기능의 차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상용차 생산을 개시 하면서 자동차시장에 뛰어든 삼성중공업의 생산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ABS·PS생산능력

(단위 : 1000M/T)



수출은 엔화강세의 지속, 기업의 현지 판매망 구축에 따른 영업력 강화, 시장다변화전략 등에 힘입어 94년대비 17.9% 증가한 89만5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승용차부문은 엔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우위지속, 시장다변화 전략, 신모델 수출 본격화 등에 힘입어 94년대비 1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용차부문은 남미·중동 등지로의 수출이 계속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4년대비 30.3%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부품 원산지 표기 의무화, 유럽 각국의 대기오염방지 움직임 등 선진국들의 각종 규제도 만만치 않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4년 자동차 시장의 호황에 따른 자금여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126만대의 생산능력을 2000년까지 216만대로 늘릴 계획으로 전북 완주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중대형 상용차공장과 충남인주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승용차공장을 건설중이며 97년부터는 전남울진공단에 연산 50만대 규모의 승용차공장 건설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65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아자동차도 97년까지 95만대, 2000년까지 2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충남아산에 60만대 규모의 승상용차공장을, 아산인근에 80만대 규모의 승용차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경우도 97년까지 군산의 연산 30만대 승용차공장과 22만대 규모의 대형상용차공장을 완공해 총생산능력을 110만대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93년에는 매출액의 2%인 3400억원을 투자했고, 94년에는 매출액의 1.9%인 6800억원을 신차 개발 및 핵심부품 개발 등에 투자했다.

자동차부분에서의 ABS수요는 94년대비 7.5% 증가한 1만7600톤의 수요가 전망된다.

미국, 포장·자동차용이 수요 주도

세계 총 SM생산능력은 93년말 현재 1755만7000톤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북미지역이 전세계 생산능력에서 36.7%, 644만3400톤으로 가장 큰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은 아시아가 27.9%로 489만8400톤, 서유럽이 23.7%로 416만1000톤, 동유럽이 7.1%로 124만6500톤, 기타지역이 4.6%로 80만7600만톤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북미지역의 PS생산능력은 357만4200톤으로 전세계 PS생산능력 1276만5000톤의 2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미국 PS시장은 경기의 회복과 화학공장들의 잇단 고장으로 인하여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PS 가격은 1/4분기이래 파운드당 15센트 정도가 상승하여 94년말 현재 미국의 GPPS가격은 파운드당 54~55센트, HIPS가격은 파운드당 56~57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PS용도별 사용은 대부분이 포장용과 일회용 생활품에 40%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전자에 13%, 건축에 5%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고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실질 가동율도 PS생산의 실질적인 한계상황인 90%에 다달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Dow, BASF, Novacor, Huntsman, Fina는 94년 동안 생산시설의 개보수와 확장에 전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의 호황으로 인하여 증설의 여지는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시설증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94년 6월까지의 PS생산은 93년 동기간의 140 만660톤과 비교하여 3.2% 증가한 140만 5610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말 기준으로 북미지역의 ABS생산능력은 96만1000톤으로 전세계 ABS생산능력 453만3000톤의 2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ABS는 84년에서 93년까지 평균 2~3%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사용을 보면 자동차에 25%, 잡화에 20%, 건설에 20%, 전기·전자에 12%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미지역에서의 ABS는 93년 1/4분기 이래 5~7%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94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엔화의 강세로 이와같은 현상이 더욱 더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 PS 수급타이트해 가격상승세

유럽지역에서의 PS 생산능력은 94년 현재 서유럽이 328만1000톤, 동유럽이 93만2000톤으로 전세계 PS 생산능력 1276만5000톤 중에서 25.7%,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 생산능력은 전세계 생산능력 453만3000톤중 서유럽이 87만톤으로 19.2%, 동유럽이 8만6000톤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PS수급은 SM시장의 강세로 타이트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스틸렌제품시장은 당분간 타이트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PS공급에 있어서도 타이트함이 지속되어 PS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유럽의 94년말 현재 GPPS가격은 KG당 1.85마르크, HIPS는 KG당 1.95마르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은 4/4분기 초보다 평균적으로 15/100~20/100마르크가 상승한 것이다.

향후 유럽 생산기업들은 GPPS가격을 KG당 2.05마르크, HIPS가격을 KG당 2.20마르크까지 인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스틸렌제품품 수급타이트로 인한 가격상승은 유럽의 매출증가율을 93년대비 4%를 초과케 하였으며, 가동률 또한 94%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PS·ABS 생산시설 증가추세

아시아지역에서의 PS 생산능력은 94년말 기준 430만2000톤으로 전세계 생산능력의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ABS 생산능력은 전세계 생산능력 453만3000톤 중에서 56.4% 해당하는 255만7000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985년이후 엔화의 강세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에 전자 업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88년에는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앞지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들이 일본의 수출입 균형을 변화시키게 하였다.

이러한 해외공장의 이전은 일정부분 국내내수와 미국과 유럽지역으로 재수출 목적이었으나 1993년에는 컬러 TV부문에서 수입이 수출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PS 생산기업들은 3년동안 일본에서 10만톤 이상의 시장잠식을 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처이전으로 인하여 일본에서의 PS,ABS의 소비는 과거와 같이 높은 성장을 하지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2년 일본의 PS수요는 98만3000톤, 생산은 114만톤이었으며, 93년에는 92년대비 수요가 2.9% 감소한 95만4000톤, 생산이 0.9% 감소한 112만9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수요를 보면, 93년 전기·전자용 PS수요는 92년대비 12.8% 감소한 31만1000톤, 포장부문에서는 92년대비 6.8% 증가한 28만톤, 기타부문에서 2.6% 감소한 18만1000톤으로 나타났다.

92년 ABS 생산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58만톤, 93년에는 2.4% 감소한 56만6000톤으로 나타났다. 92년 수요는 5.6% 감소한 46만6000톤, 93년은 6.6% 감소한 43만5000톤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수요는 92년 자동차부문에서 91년대비 9.0% 감소한 90만톤, 92년에는 11.1% 감소한 80만톤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93년까지 전반적인 침체기에 있어지만 94년 3/4분기로 하여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향후 일본에서의 PS,ABS수지는 자동차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회복으로 2%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스틸렌부문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입국가이면서 이에대한 유도품은 가장 큰 수출국이다.

91년 SM 생산과 수입은 각각 38만톤과 50만톤, 92년 수입은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56만5000톤,

생산은 전년대비 약 5.3% 감소한 36만톤으로 나타났다. 또 93년 현재 60만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98년까지는 70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PS생산능력이 25만톤이나, 93년 생산은 10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저가의 수입품과 원재료의 부족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이에 맞추어 플라스틱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료확보면에서 스틸렌은 향후 2000년까지 30만~50만톤으로 증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안국가들도 최근 몇년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아세안국가에서의 94년 PS 총생산능력은 33만톤, ABS는 15만톤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2/1>